2021.11
동향

항만과 산업

www.kmi.re.kr
발행일 2021. 11. 25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일대에 군 요소수 긴급 지원
- 인천 내항 1부두 공영선석, 한시적 타품목 하역 허가
- 러시아 수출용 생활용품, 최초 동해안 선적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수에즈운하, 선박 통행료 6% 인상
- 오키나와항, 해저화산 폭발로 인한 경석으로 피해 속출
- 벨기에 엔트워프항과 제브뤼헤항, 칠레 정부와 그린수소 MOU 체결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군산항 모래전용부두 운영사 파산
- 미국 철강업계, 전기로 증설 및 스크랩공급망 확보 경쟁
- 우리나라 대 미국·중국 전기차 무역적자 심화

항만과 산업은 최신 국내외 항만물동량과 산업동향을 월 3회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657) 또는 이메일(pdac@kmi.re.kr)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PDAC 항만수요예측센터 Port Demand Analysis Center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❶ 부산항 일대에 군 요소수 긴급 지원[1)]

- 11월 11일, 정부는 '요소수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군에서 확보한 요소수 약 20만 L를 전국 주요 무역항 일대에 긴급 지원하였으며 부산항은 총 5곳에서 요소수 공급이 이뤄짐
  - 부산항 요소수 판매 주유소는 부산 신항 4곳과 부산 북항 1곳으로 총 10만 L를 지원받음
- 해당 요소수는 컨테이너 차량에 한정하여 1인당 최대 30L까지 구매할 수 있고 가격은 10L당 약 1만 2천 원임
- 요소수를 구매하기 위해 아침부터 화물차들의 대기 행렬이 이어지면서 긴급 지원 요소수는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 공급 여부 및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요소수 부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임

❷ 부산항만공사(BPA), 신항 임항도로 포장보수공사 시행[2)]

- BPA는 신항 임항도로의 중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균열 및 파손 등을 관리하기 위해 개선된 도로 포장보수 공법을 11월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임
  - 지난해 한국도로학회와 '신항 임항도로 포장파손 보수 표준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로의 교통량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적용성이 높은 최적의 보수공법을 선정함
  - 내구성이 높은 개질아스콘을 사용하여 기존 도로 표층 6cm를 절삭 후 7cm를 포장하는 공법으로 도로의 내구성 향상 및 포장수명의 연장이 기대됨
- 시범 적용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법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기존 사후보수 체계의 포트홀 보수 방법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을 위한 포장파손 보수공사 시행으로 임항도로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항 신규 소형선부두 완공[3)]

- 지난 11월 1일, 부산항건설사무소는 관공선과 역무선 등 역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선들을 위한 신규 계류시설인 소형선부두를 완공함
  - 소형선들은 현재 북컨테이너 부두 서측 전용부두(900m, 수용능력 46척)를 이용하고 있으나 컨테이너선 통행량 증가에 따른 소형선 계류시설 부족으로 추가 부두 확충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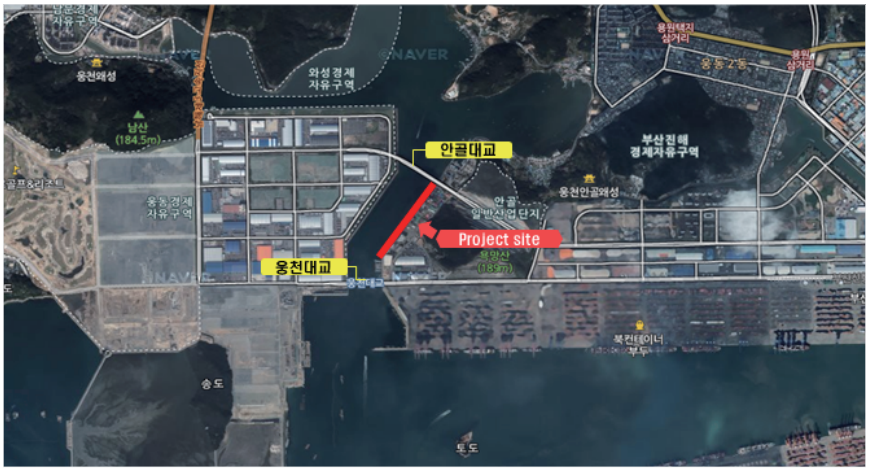
1) 연합뉴스(2021.11.11.),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1134400051?input=1195m(2021.11.12. 검색)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11.02.),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6838(2021.11.12. 검색)

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11.03.), 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1942(2021.11.12. 검색)

- 해당 사업은 '18년 12월부터 총 사업비 313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590m의 소형선부두와 부잔교 3기를 대상으로 함
- 전용부두 확보로 인해 소형선 접안능력이 향상되어 효율적인 항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소형선부두 위치도



자료: 부산지방해양수산청(2021.11.03.),
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1942(2021.11.12 검색)

2) 인천항

❶ 내항 1부두 공영선석, 한시적 타품목 하역 허가[4)]

-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선·체화 현상을 극복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내항 1부두 18, 19선석(공영선석)에서 타품목 하역을 한시적으로 허가함
  - 최근 국내외 항만의 체선·체화 현상 심화로 선석 부족으로 인한 선박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IPA는 공영선석에 대한 한시적 타품목 하역을 허가함
  - 공영선석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군함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의 접안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 내항 1, 6, 8부두에 총 17개 선석이 입지해 있음
  - 선석길이 및 수심 등이 확보되는 1부두 18, 19 잡화선석의 한시적 타품목 하역 승인은 항만 내 체선·체화 완화와 원활한 하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11.10.),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0163&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2021.11.17. 검색)



인천내항 1부두 18선석, 19선석 위치도



자료: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11.10.),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0163&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2021.11.17 검색)

❷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스마트물류 구축사업' 지원기업 모집[5)]

- IPA는 지난 11월 9일 '21년 인천항 스마트물류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함

  - 신규 추진하는 '2021년 인천항 스마트물류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류환경 디지털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기획됨

  - IPA와 입주 계약을 맺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IPA는 선정된 5개 기업에 빅데이터,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협력기업 물류환경 상담을 기반으로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의 설비구축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11.09.),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0144&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2021.11.17. 검색)

3) 여수·광양항

❶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수출기업 긴급지원 인센티브 지급[6)]

- YGPA는 수출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선복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지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인센티브는 북미~동남아 항로별 수출물량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선사를 대상으로 지급함으로써 글로벌 물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주들의 수출 선복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YGPA는 올해 초에도 선복 부족 및 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 지원 및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긴급지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또한 YGPA는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외에도 컨테이너 장치장 추가확보,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협의 등 다각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1.11.01.),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027&category=(2021.11.08. 검색)

4) 울산항

❶ 울산항만공사, 한국국제물류협회와 울산항 이용 활성화 MOU 체결[7)]

울산항만공사(UPA)는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와 10월 28일 '울산항 화물 유치 및 이용 활성화, 국제물류업계의 글로벌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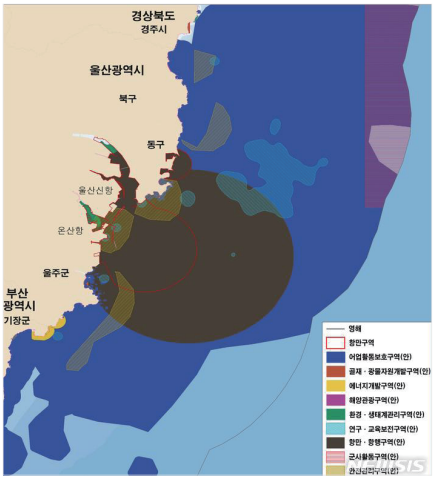
- 두 기관은 '울산항 컨테이너 이용 활성화', 'UPA 추진 해외물류사업 협력', 'KIFFA 회원사 대상 상생 협력', '울산항 국제물류 인력 양성 협력', '국제물류업계의 글로벌 물류경쟁력 강화', '2022 FIATA 부산세계총회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임
- UPA는 적극적인 포트세일즈를 추진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물동량을 증대할 계획임

❷ 해양수산부-울산시,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8)]

해양수산부는 울산광역시와 11월 10일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바다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적합한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는 법정계획임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항만·항행구역(369㎢·26.8%)과 어업활동보호구역(836㎢·60.7%)을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가스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 담김
- 선박 통항량, 어획량, 고래 출현지점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방향을 담아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보완할 예정임

울산 해양용도구역(안)



자료: 뉴시스(2021.11.0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9_0001644252&cID=13001&pID=13000(2021.11.11. 검색)

7) 물류신문(2021.10.29.),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22(2021.11.11. 검색)

8) 뉴시스(2021.11.0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9_0001644252&cID=13001&pID=13000(2021.11.11. 검색)

5) 평택·당진항

❶ 경기평택항만공사,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9)]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1년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지원사업 2차 참가 접수를 받음

- '21년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지원사업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및 해외 판로개척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임
- 평택항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중소수출기업에게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홍보 및 바이어매칭(외국어 카탈로그·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통번역)', '물류비 지원' 등 총 2개 분야 4개 세부 지원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원대상은 '21년 평택항 이용 중소수출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함

❷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수 임박[10)]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에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을 제출함

-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을 제출함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동부두에 인접한 준설토 투기장 일원에 물류, 제조, 업무편의시설 용지를 조성, 공급하는 사업임

- 사업 부지는 22만 9,091㎡ 규모의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이며, 총 투자 비용은 항만공사 자기자본금 30억 원, 공사채 발행 270억 원, 분양대금 298억 원 등 총 598억 원 규모임
- 배후단지는 복합물류·제조용지 8만 7,443㎡(38.2%), 업무·편의시설용지 6만 1,955㎡(27.0%), 공공시설용지 7만 9,693㎡(34.8%)로 계획되어 있으며, 복합물류·제조시설용지에는 친환경 자동차와 PDI 센터 등을 유치할 방침임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B/C는 0.86으로 다소 미흡, 재무성평가(PI)는 1.041로 보통이었으나, 국가계획으로서 '평택항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종합검토의견에서 B/C 1.26을 확보함
- 경기도와 항만공사는 이번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고용유발효과 550명, 취업유발효과 747명 등 1,297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는 1,19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0억 원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1,673억 원 규모로 전망함

9) 경기평택항만공사 보도자료(2021.10.25.), http://www.gppc.or.kr/gppc/board/boardView.do?menuId=101020101&cms_site_id=KOR&cms_group_id=101&site_lang=%2Fgppc%2FmbersrvcMainview01.do%3Fcms_site_id%3DKOR&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urvey_ty=&site_link=%EC%84%A0%ED%83%9D%ED%95%98%EC%84%B8%EC%9A%94&boardId=101020101&dataId=4361&pageIndex=1(2021.11.11. 검색)

10) 중부일보(2021.10.27.),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9216(2021.11.11. 검색)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위치도**



자료: 중부일보(2021.10.27.),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9216(2021.11.11. 검색)

6) 포항항

❶ 포항시, 해양장비 실 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11)12)]

포항시는 11월 3일 영일만항과 영일만3산업단지에서 각각 장영실호 취항식과 해양장비시험평가센터 준공식을 개최함

- 장영실호는 3천 톤급의 시험평가 전용선으로, 해양장비·수중로봇 등을 싣고 우리나라 전해역에서 성능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건조된 선박임
- 기존에는 해양장비·수중로봇의 실 해역 검증을 위해서 1일 8천만 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지불하고 외국선박을 사용했으나, 장영실호의 도입으로 연간 약 112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와 적기 활용을 통한 국내 개발 장비의 조기 상용화 효과가 기대됨
- 해양장비 시험평가센터는 장영실호의 실 해역 시험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장영실호에서 수집된 시험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해양장비와 로봇을 점검·수리하는 기능을 담당함
- 포항시는 추후 실 해역 시험장 조성과 표준화, 해양장비 시험평가 공인인증시스템 마련, 포항 내 포스텍, 해양로봇실증센터,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장비·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임

11) 포항시 보도자료(2021.11.05.), https://www.pohang.go.kr/news/bnews.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mV3cyUyRjU4OSUyRjY4MzA5NyUyRmFydGNsVmlldy5kbyUzRnBhZ2UlM0QxJTI2c3JjaENvbHVtbiUzRCUyNnNyY2hXcmQlM0QlMjZiYnNDbFNlcS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mxpc3RNb2RlJTNETEJTI2(2021.11.10. 검색)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보도자료(2021.11.03.), https://www.kiost.ac.kr/cop/bbs/BBSMSTR_000000000075/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75&nttId=22028(2021.11.10. 검색)



7) 대산항

❶ '21년 3분기 물동량, 2,309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13)]

올해 3분기 항만물동량은 전년 2,133만 8천 톤 대비 8.2% 증가한 2,309만 3천 톤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석유정제품이 924만 6천 톤, 원유 691만 5천 톤, 유연탄 364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 3.8%, 7.9% 증가함
- 반면, 컨테이너의 경우 1만 9,258TEU로 전년 동기 대비 50.3% 감소함
- 지난 9월까지 전체 처리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6,649만 1천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컨테이너는 40.7% 감소한 5만 6,355TEU를 처리함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을 위해 제2항로 컨테이너선 야간 도선 실시 및 선화주 워크숍 개최 등 항만운영을 개선해 갈 계획임

13) 대전일보(2021.11.03.),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93029(2021.11.08. 검색)

8) 동해·묵호항

❶ 러시아 수출용 생활용품, 최초 동해안 선적[14)]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10월 25일 동해항을 출항하는 한·러·일 페리(두원상선 운영)에 러시아 수출용 생활용품 22개 팔레트(1TEU 분량)를 선적함

- 선적된 물품은 1만 2,000달러 상당의 주방용 세제와 물티슈 등으로 구성됨
- 수출(강원도)·수입(러시아)기업 양사는 연간 100TEU 정도의 물량을 부산항을 통해 사할린으로 선적하였으나 선적항을 부산항에서 동해항으로 옮겨 동해-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이용하는 것은 처음임
-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러시아 수출품의 동해안 선적은 동해항을 북방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된 귀중한 성과로 이를 토대로 북방항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힘

❷ 동해신항, 방파호안 1공구 준공[15)]

동해신항이 산업원자재 및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동해신항 방파호안 1공구가 11월 11일 준공함

14) 동해시 보도자료(2021.10.26.), https://www.dh.go.kr/pages/sub.htm?mode=view&mv_data=aWR4PTEwMTMwJm5hdl9jb2RlPWRoMTQ3MDc1Nzc4MCZzdGFydFBhZ2U9MCZsaXN0Tm89OTgyOSZ0YWJsZT1jc19iYnNfZGF0YV9yZXBvcnQmY29kZT1yZXBvcnQmc2VhcmNoX2I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SZwYXJ0PQ==(2021.11.08. 검색)

15)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11.10.), https://donghae.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8525&boardKey=7&menuKey=428&currentPageNo=1(2021.11.12. 검색)



- 동해청은 원자재 허브항인 동해항의 만성적인 체선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물동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3년부터 '30년까지 총 1조 7,342억 원을 투입하여 '동해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일환인 방파호안 1공구는 태풍이나 이상 파랑 등을 막는 대형 항만구조물로서 최대 10만 톤급 선박이 머물 수 있는 석탄부두 등 7개 부두(기타광석3·시멘트2·석탄1·잡화1 선석)의 잔잔한 수역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됨
- '17년 6월부터 약 5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약 2,089억 원이 투입되어 방파호안 539m와 친수호안 733m가 축조됨

동해청은 '20년 8월 북방파제 1,700m를 확보한 데 이어 방파호안 1공구까지 준공함으로써 동해신항 외곽시설의 90% 개발을 완료함

- 마지막 외곽시설인 방파호안 2공구도 차질없이 축조하여 '22년 상반기에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임

방파제와 방파호안이 모두 조성되면 동해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 운항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 기간산업의 원자재인 광석과 시멘트, 유연탄 등의 원활한 수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방파호안 1공구 전경



자료: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11.10.),
https://donghae.mof.go.kr/jfile/readDownloadFile.do?fileId=MOF_ARTICLE_8525&fileSeq=1(2021.11.12. 검색)



9) 목포항

❶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동절기 대비 다중이용 항만시설 안전점검 실시[16]

목포해수청은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여객터미널, 부두건설현장 등 다중이용 항만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목포항과 흑산도항에 설치된 부두시설, 부잔교시설 등 항만시설 98개소와 건설현장 3개소를 대상으로 함
- 중량화물 이동 등에 따른 파손이 빈번한 차막이, 배수로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항만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목포해수청은 이번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항만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임

❷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북항 등대 정비[17]

목포해수청은 11월 2일 목포북항 동·서방파제 등대를 정비함

- 기존 목포북항 방파제 등대는 장기간 사용과 해풍에 의한 파손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번 정비에서는 해안가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내구성을 가진 자재를 통한 등대 보강, 방문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난간의 보강과 설치, 항로표지 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짐

목포북항 동·서방파제등대 위치도



자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11.10.),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2755(2021.11.10. 검색)

1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11.10.),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2794(2021.11.10. 검색)

17)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11.02.),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2755(2021.11.10. 검색)

10) 군산항

❶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18)]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됨

-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의 특성상 지속적인 토사 퇴적으로 적정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설사업은 필수적임
- '20년도에는 군산항 준설토가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사용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음
- 그동안 군산항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준설토는 새만금단지의 매립토로 활용되어 왔으나 토질문제, 준설토의 경제성 등으로 더 이상 새만금단지에 매립토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짐
- 이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군산시, 전라북도 등이 국비 4,287억 원을 투입하여 투기장 65만 평을 조성하는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선정을 지원함

18) 군산시청(2021.11.04.),http://eminwon.gunsan.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 (2021.11.18. 검색)

11) 마산항

❶ 서항지구 친수공간 개장[19)]

창원시는 11월 6일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내 야외광장에서 서항지구 친수공간 개장식을 개최함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은 '17년부터 약 500억 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부두 기능을 상실한 약 22만 ㎡규모 서항지구 항만부지를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전국 최대규모임
- 친수공간에는 민주주의 전당 건립과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정비, 근대항만역사 체험클러스터, 해양안전체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임
- 창원시와 마산청은 지난 '21년 7월 마산항 친수공간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소유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70% 국비 지원을 토대로 창원시는 친수공간 내 공원, 편의시설, 주차장 관리 등을 책임지게 됨
- 8자형 보도교, 바닷가 산책길, 물놀이 시설 등으로 조성된 서항지구 친수공간이 창원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9) 경남일보(2021.11.07.),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527(2021.11.08.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❶ 북부만항, 30만 톤급 원유부두 운영[20]

-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북부만항에 신규 30만 톤급 원유부두가 운영을 개시함
  - 지난 11월 5일, 초대형 유조선인 'NEW WEALTH'호가 부두 완공 후 처음으로 정박함
- 해당 부두는 약 23억 2,000만 위안(약 3억 6,260만 달러)을 투입하여 건설되었으며 연간 처리량은 약 986만 톤임
  - 지방 교통부 부국장은 해당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 서부 지방과 싱가포르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신국제육상무역회랑(New International Land-Sea Trade Corridor)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라 밝힘
  - 북부만항이 위치한 광시성은 아세안 국가와 육해상이 모두 연결된 지역으로 신국제육상무역회랑의 중요한 환승지역임
  - 북부만항은 현재 270개 이상의 부두가 운영 중이며 50개 이상의 항로를 통해 300개 이상의 항만과 연결되어 있음
- 부두 건설로 인해 원유 하역 비용 절감 및 액체벌크화물 처리능력 향상 등 북부만항의 핵심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북부만항의 '21년 3분기 누적 화물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여 2억 톤을 돌파하였으며 컨테이너 처리량 역시 같은 기간 19.1% 증가한 418만 TEU를 기록함

20) Bunkerportsnews(2021.11.08.), http://www.bunkerportsnews.com/News.aspx?ElementId=9cd7370f-69c3-4ec7-8041-d8827032993e(2021.11.12. 검색)

2) 아시아

❶ 오키나와항, 해저화산 폭발로 인한 경석[21]으로 피해 속출[22]

- 해저화산 폭발로 많은 양의 경석이 오키나와현의 주요 섬으로 밀려와 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해당 경석은 지난 8월 오키나와항만에서 약 1,5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군도 인근의 후쿠토쿠 오카노바 해저화산에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됨
  - 해류를 따라 이동하다 약 2개월이 지난 최근 오키나와 해안까지 도달하여 여러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음

21) 화산에서 분출된 마그마가 식을 때 가스가 방출되면서 내부에 공간이 많이 생긴 다공질의 암석으로 부서지기 쉽고 물에 뜨는 성질이 있음

22) The Japan News(2021.10.28.), https://the-japan-news.com/news/article/0007926615(2021.11.11. 검색)



- 약 750척의 어선이 엔진 손상 우려로 항만에서 출항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만 주변에 양식 어류의 폐사도 잇따르고 있음
- 오키나와현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자체 차원에서 포크레인과 트럭을 동원하여 해안의 경석 수거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대응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❷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항, 컨테이너 장치장 사용료 인상에 따라 항만 이용자와 장치장 소유자 간 갈등 첨예화[23)]

경유가격 인상으로 치타공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장(off-dock CY)의 사용료가 전년 대비 23% 인상되었으며, 해운회사와 수출업체들은 장치장 사용료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주력 수출업체인 의류업계와 해운업계는 장치장 사용료 증가로 인해 수출단가가 상승하고 방글라데시의 수출입 무역의 경쟁력도 약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반면 방글라데시 내륙 컨테이너 장치장 협회(Bangladesh Inland Container Depot Association, BICDA)는 경유 가격 인상에 따라 컨테이너 취급 장비 및 운반 차량의 요금 인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의류 업체와 해운회사는 BICDA가 경유 가격 인상과 무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장치장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이에 방글라데시의 금감원, 관세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BICDA와 대립하고 있음

23) Container News(2021.11.16.), https://container-news.com/chittagong-depots-owners-users-at-loggerheads-over-charge-hike/(2021.11.18. 검색)



3) 미주

❶ 파나마운하, '21년 회계연도('20.10~'21.09) 역대 최대 통행 기록 달성[24) 25)]

'21년 실적은 총톤수 기준, 컨테이너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LNG·LPG운반선, 차량운반선, 벌크선이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함

- '21년 기준, 파나마운하는 연간 5억 1,670만 파나마운하 톤(PC/UMS)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실적이며 코로나19 이전인 '19년 대비 10% 높은 수치임
- '21년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전례 없는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서 컨테이너 운임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여러 부문에 걸쳐 생산이 둔화함
- 반면, 파나마운하는 '20년 10월 1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LNG·LPG운반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차량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통행량이 증가함
- 컨테이너선은 올해 파나마운하를 통해 1억 8,430만 PC/UMS톤을 기록하면서 '20년 대비 2% 증가했으며, 벌크선(9,000만 PC/UMS톤), 화학운반선(6,500만 PC/UMS톤), LNG운반선(6,100만 PC/UMS톤), LPG운반선(5,280만 PC/UMS톤)이 뒤를 이음
- 파나마운하 통행량의 톤수 기준 증가율은 LNG운반선이 31.4%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LPG운반선과 차량운반선은 각각 18.4%, 15.6% 증가함
- 다만, 차량운반선은 여객선과 더불어 통행 수요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22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파나마운하 통행 횟수는 네오파나막스급 선박 통행이 증가하면서 '21년 총 1만 3,342회를 기록함

-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주요 교역로는 '미국 동부~아시아', '미국 동부~남미 서부', '남미 서부~유럽', '남미 연안', '남미 동안~아시아'임
- 파나마운하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한 단계 상승한 우리나라가 4위를 기록했으며, 5위를 기록한 국가는 칠레임

24) Panama Canal Autority(2021.10.29.), https://www.pancanal.com/eng/pr/press-releases/2021/10/29/pr715.html(2021.11.11. 검색)

25) 파나마운하 운영실적은 회계연도 기준(전년도 10월~당해연도 9월)으로 작성



4) 유럽

❶ 벨기에 엔트워프항과 제브뤼헤항, 칠레 정부와 그린수소 MOU 체결[26)]

- 벨기에 엔트워프항과 제브뤼헤항은 칠레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를 유럽으로 수입하는 물류 체인 구축 협력에 대한 MOU를 11월 4일 체결함
  - 엔트워프항과 제브뤼헤항은 서유럽 지역 액체화물 허브 항만으로 현재 유럽 내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자리잡기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칠레 정부는 '30년까지 가장 저렴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40년까지 세계 3대 그린수소 수출국이 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번 MOU를 통해 칠레와 벨기에의 두 항만은 정기적으로 만나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수소의 생산과 운송 시스템 구축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을 탐색할 예정임

26) Port of Antwerp(2021.11.14.), https://newsroom.portofantwerp.com/port-of-antwerp-port-of-zeebrugge-and-chile-join-forces-to-foster-hydrogen-production(2021.11.10. 검색)

5) 오세아니아

❶ 포트헤들랜드(Port Hedland)항, 호안 축조 관련 2,900만 달러 계약 체결[27)]

- 포트헤들랜드항은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이며, '20년 회계연도 기준 철광석 및 소금 등 1,160억 달러 이상의 물량을 처리함
- 이번 포트헤들랜드항에 축조될 호안은 Nelson Point Tug Haven(NPTH)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태풍, 폭풍 및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해 500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됨
  - NPTH는 1985년에 포트헤들랜드항이 자연재해 발생 시 예인선의 대피를 위해 건설한 피항지임
  - NPTH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기존 제방 교체 및 호안 축조를 포함하며 5,120만 달러가 투입되는 서호주 복구 계획 중 일부임[28)]
  - 축조 공사는 필바라 지역 건설회사인 Austral Construction이 수주하였으며 호안 설계, 제작, 측량, 전기, 배관 및 지반 공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공사 진행에도 항만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예정이며, 호안 축조 공사는 '22년 말에 완료될 예정임

27) Infrastructure Magazine(2021.10.25.), https://infrastructuremagazine.com.au/2021/10/25/29-million-contract-awarded-at-port-of-port-hedland/(2021.11.10. 검색)

28) 서호주정부 보도자료(2020.07.31.), https://www.wa.gov.au/government/announcements/330-million-drive-industry-opportunities(2021.11.10. 검색)



6) 아프리카

❶ 수에즈운하, 선박 통행료 6% 인상[29)]

이집트의 수에즈운하청은 내년 선박 통행료를 올해보다 6% 인상한다고 밝힘

- 인상된 선박 통행료는 내년 2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LNG 운반선과 여객선은 인상 대상 선종에서 제외됨
- 이번 통행료 인상은 지난 '14년 5월 이후 약 8년 만에 단행되는 것으로, 수에즈운하청은 '12년부터 3년 연속 통행료를 인상한 뒤 8년간 요율을 동결한 바 있음
- 수에즈운하청장은 통행료 인상 배경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전망한 세계 경제성장률과 해상운송 수요를 들어 설명함
- IMF는 올해와 내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5.9%, 4.9%로, WTO는 해상운송 수요가 6.7%,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해운사의 수익성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함
- 한편, 파나마운하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통행료를 인상한 데 이어 수에즈운하까지 요율 인상에 나서면서 해운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❷ 나이지리아항만청(Nigerian Port Authority, NPA), 관제시스템 개선[30)]

NPA는 서부·중앙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나이지리아의 항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항만 전반에 걸친 시설 증대 및 운영 최적화를 실시함

- NPA는 최근 라고스항만단지(LPC: Lagos Port Complex)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제 시설을 재구축함
- LPC의 레키(Lekki)항과 틴캔섬(Tin Can Island)항은 운영 혼잡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하역 능력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음[31)]
- NPA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LPC에 대규모 혼잡사태가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함
- 틴캔섬항 관제탑의 선박 통신 시스템과 라고스(Lagos)항-레키항 간 통신 시스템을 개선 중임
- 운영 효율성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보안 순찰선과 같은 해양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임
- NPA는 나이지리아의 해양 산업이 서부·중앙아프리카 화물 무역의 70%를 처리한다고 밝혔으며 항만 인프라 개발이 국가의 막대한 잠재적 수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함[32)]

29) Bloomberg(2021.11.05.),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11-05/suez-canal-raises-toll-for-ships-by-6-after-record-revenue(2021.11.11. 검색)
30) 나이지리아항만청 보도자료(2021.10.20.), https://nigerianports.gov.ng/2021/10/20/port-infrastructure-npa-upgrades-control-tower/(2021.11.11. 검색)
31) The Cable(2021.11.07.), https://www thecableng/npa-lagos-ports-operating-above-capacity-we-need-to-improve-efficiency(2021.11.11. 검색)
32) Nairametrics(2021.11.08.), https://nairametrics.com/2021/11/08/maritime-lagos-seaports-operating-above-capacity-npa/ (2021.11.11.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❶ 컨테이너 해운시장 불확실성 지속 전망[33)]

- 지난 11월 5일, 제9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에서는 국제 글로벌 물류대란의 원인과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시인텔리전스 컨설팅 애널리스트 마리타임 대표는 신규 발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23년 혹은 '24년에 해운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별 봉쇄조치 및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으로 대내외적인 변수가 많다고 밝힘
- 전 알파라이너 수석임원 라이너리티카 이사는 폭증한 수요가 적정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시장 정상화의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으며 수급 균형이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함
  - 화물 수요 폭증 대비 항만 내 공급 능력 부족 및 전체 선복량 증가 대비 유효 선복 공급량 증가가 적은 점 등을 들어 현재 글로벌 물류대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❷ '21년 세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위권 다툼 치열[34)]

- '21년 3분기 누적 기준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물동량이 발표되면서 중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상위 6대 컨테이너 항만은 싱가포르(2위)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항만이 차지하고 있음
  - 부산항의 경우 '19년까지 6위 자리를 유지하였으며 '20년 칭다오항에게 밀려 7위를 기록함
- '21년 세계 컨테이너 항만 순위는 4위까지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5위 자리를 두고 광저우항과 칭다오항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임
  - '21년 3분기 누적 기준 광저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786만 TEU(+5.2%)이며 칭다오항은 1,783만 TEU(+11.1%)로 약 3만 TEU의 차이를 나타냄
  - 부산항은 1,698만 TEU(+5.4%)로 칭다오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사실상 올해 6위 자리를 탈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3) 코리아쉬핑가제트(2021.11.12.),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2336(2021.11.12. 검색)
34) 한국해운신문(2021.11.12.),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75(2021.11.12. 검색)



- 두 항만 모두 매월 평균 200만 TEU 처리량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어 순위 예측이 쉽지 않으며 연말이 돼야 최종 순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임

- 한편,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는 연초 대비 다소 완화되고 있음
  - 상하이항(6월 누적: 14.4%→9월 누적: 9.9%), 닝보-저우산항(6월 누적: 21.3%→9월 누적: 12.2%), 싱가포르항(6월 누적: 5.0%→9월 누적: 3.4%)

2) 양곡

❶ '21년 10월,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전월 대비 하락, 4/4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 전 분기 대비 상승 전망[35)]

- 사료용 곡물(밀, 옥수수, 대두박)의 10월 수입단가는 세 품목 모두 하락하였으나 식용 곡물은 옥수수(359달러/톤)만 전월 대비 1.1% 하락함
  - 10월 사료용 밀(280달러/톤)과 옥수수(313달러/톤), 대두박(493달러/톤)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각각 4.5%, 0.8%, 0.2% 감소함
  - 식용의 경우 밀(344달러/톤)과 채유용 콩(618달러/톤)의 수입단가는 옥수수와 달리 각각 3.3%, 3.1% 상승함

- 4/4분기 식용 수입단가지수(CIF, 원화기준)는 136.5로 전 분기 대비 9.9% 상승하였으며 사료용 수입단가지수(CIF, 원화기준) 또한 전 분기 대비 5.9% 상승한 135.7을 기록함
  - 21/22년 밀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용 옥수수 수요 증가 예상으로 '22년 1/4분기에도 수입단가지수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35)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관측 11월호 (2021.10.29.),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245/page/1 (2021.11.18. 검색)

3) 시멘트

❶ 쌍용C&E(쌍용양회),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년 동기 20% 이상 급등[36)]

- 시멘트업계 1위 쌍용C&E의 '21년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1조 1,753억 원, 영업이익 1,80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5%, 2.7% 증가함
  - 3분기 실적은 매출 4,2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2%가 늘었으며 영업이익도 685억 원으로 26.3% 증가함
  - 시멘트 제조원가의 30~40% 비중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연초보다 3배 이상 폭등한 상황에서도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시멘트 수요 증가와 중국 등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함

36) 한국경제(2021.11.05.),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110583391(2021.11.12. 검색)

쌍용C&E는 유연탄을 폐플라스틱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규모 순환자원처리설비를 구축해 제조원가를 크게 절감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함

- '16년 이후 탄소저감과 설비 효율 향상,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잇달아 단행하고 '19년부터 순환자원처리설비 구축에 1,000억 원을 투자하여, 폐플라스틱 등 순환자원의 유연탄 대체율은 30% 이상으로 업계 최고 수준임
- 올해부터 2,820억 원을 투자해 폐합성수지 사용량 증대를 위한 기반을 추가로 조성하고 메인 버너 교체, 쿨러 및 예열실 개조 등으로 탄소배출을 크게 낮출 계획임
- 한편, 쌍용C&E는 지난 10월 5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시멘트 개발을 추진한 바 있음[37)]

37) 한국경제(2021.10.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055806i(2021.11.12. 검색)

4) 모래

❶ 군산항 모래전용부두 운영사 파산[38)]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은 군산항 모래전용부두 운영사인 금석해운(주)이 지난 9월 10일 파산함에 따라 향후 운영에 대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군산청은 모래부두 정상 운영을 위해 오는 15일 채권단과 회의를 진행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 채권단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모래전용부두를 방치할 수 없으며, 경쟁력 있는 운영사를 만들고 활용도를 연구해 군산지역에의 소량 판매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파산한 금석해운(주)는 지난 '12년 군산항 모래전용부두 운영사를 맡은 이후 어민들의 반대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의 해사 채취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늦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음

- 해사 채취 인허가권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공단으로 넘어가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용료가 오른 것이 경영난의 일부 원인이라고 밝힘
- 최대 수요처인 레미콘 회사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다골재의 가격이 공급 물량 부족으로 상승하자 골재를 분쇄해 사용하는 샌드밀(sand mill)과 재활용 골재로 대체해 경영난에 큰 영향을 미침

38) 전라일보(2021.11.01.),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40741(2021.11.12. 검색)



5) 석탄

❶ 중국, '25년까지 발전소 석탄 사용량 감축 목표 설정[39)]

- 중국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 소비량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는 '25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석탄 소비량을 1킬로와트시(kWh) 당 평균 300g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힘
  -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발전 및 난방 부문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기준 발전에 쓰인 석탄은 305.5g/kWh 수준임
  - NRDC는 앞으로 석탄 사용량이 평균 300g/kWh를 초과하는 발전소 중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개선할 수 없는 곳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에너지 절감과 소비 감축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39) The daily star(2021.11.04.), https://www.thedailystar.net/business/global-economy/news/china-sets-target-coal-use-power-plants-2025-2221676(2021.11.09. 검색)

6) 철광석

❶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40)]

- 62% Fe 분광의 중국 칭다오항 철광석 가격은 10월 26일 122.3달러에서 11월 2일 95.77달러로 하락하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 겨울철 난방 및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질 개선에 나선 중국 정부의 전력 사용 통제 및 철강 감산 규제로 인해 철광석 수요 약화가 계속되고 있음
  - 11월 1일 호주 및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량이 각각 100만 톤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중국의 10월 일평균 조강 생산량은 '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한 철광석 수요 약세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40)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11.04.), https://m.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11.10. 검색)



7) 기타광석

❶ 니켈, 아연 등 주요 광물가격은 미연준의 테이퍼링 결정에 따른 달러강세로 하락세 기록[41)]

- 미연준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결정에 따른 달러강세 및 중국의 전력사용 규제완화로 비철금속 하방압력이 발생함

  - 이에 따라 11월 1주차 전기동과 니켈가격은 각각 전주 대비 1.3%, 1.7% 하락세를 나타냄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동 재고량은 11월 1주차 기준 125,540톤으로 전주 대비 16.6% 감소하는 등 10주 연속 감소하면서 타이트한 수급상황을 나타냄
  - 니켈의 경우 LME 재고량이 139,703톤으로 전주대비 1.9% 감소하는 등 28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상기 하방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미달러인덱스(11월 1주차)는 미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공표로 같은 기간 94.09로 전주 대비 0.3%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기피심리가 확산됨

41)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11.08.),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1.11.10. 검색)

8) 목재

❶ 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난항[42)]

-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목재산업 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11월 8일에 발표함

  - '목재산업 동향조사'는 목재산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기별로 조사·분석하고 해당 결과를 산업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 국내·외 원료수급과 코로나19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음

  - 목재 생산업체 동향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회복되며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소폭 증가(+1.7%)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아직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치(-5.4%)를 보이며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생산업체 총 종사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으며, 고용전망에 관한 설문에서 조사 대상 업체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고용 인력의 감소가 지속할 것으로 나타남
  -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통한 체감 경기 분석 결과, 2분기 종합지수는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감소(-37%)하여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양상을 보였으며, 목재원료 수급의 어려움, 품목별 경기의 양극화가 두드러짐
  - '원자재 구입'지수는 올해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판과 목재칩(펄프용) 업계는 사업 운영에 있어 '원자재 가격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42) 산림청 보도자료(2021.11.08.),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4346&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3&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11.11. 검색)

9) 고철

❶ 미국 철강업계, 전기로 증설 및 스크랩공급망 확보 경쟁[43)]

미국 철강업계가 탄소중립 실현과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로를 증설하고 대형 스크랩기업을 인수하는 추세임

- 호주의 대형 철강 기업 블루스코프(BlueScope)는 지난 11월 5일 미국 전기로 자회사인 노스스타 블루스코프 스틸(North Star BlueScope Steel)의 최대 스크랩 공급사 메탈엑스(MetalX)를 총액 2억 4천만 달러(약 2,8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함
- 노스 스타 블루스코프 스틸은 열연코일 생산 기준 북미 5위 기업으로 200만 톤의 연간 조강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200만 톤의 생산능력을 300만 톤으로 확장하기에 앞서 안정적인 원료공급망 구축을 위해 메탈엑스를 올해 연말까지 인수할 예정임
- 북미 최대 전기로 열연생산 기업인 클리브랜드-클리프스(Cleveland-Cliffs)는 올해 10월 미 북동부 대형 스크랩가공기업 FPT를 총액 7억 7,500만 달러(약 9,300억원)에 인수 계약함
- 세계 최대 전기로제강사 누코어는 올해 10월 그룹산하 스크랩 계열사인 AMR과 TMR을 통해 미주리 주에 위치한 그로스만 아이언 앤 스틸(Grossman Iron and Steel)과 플로리다 주 소재 가든스트리트 아이언 앤 메탈(Garden Street Iron & Metal Inc)을 인수함
- 미국 2위 전기로제강사 스틸다이나믹스는 텍사스 주 소재 연간 생산능력 300만 톤 규모의 새로운 전기로 공장을 가동하기에 앞서 올해 3월 대형 스크랩 가공기업 짐머(Zimmer)를 인수하여 연간 200만 톤의 스크랩을 확보함

43) 스크랩워치(2021.10.06.), 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39(2021.10.12. 검색)

10) 철재

❶ 세계철강협회, 단기수요전망 발표[44)]

세계철강협회는 10월 15일 발표한 단기수요전망에서 '22년 세계철강수요가 2.2% 증가한 19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 세계철강협회는 지난 4월 '22년 철강수요가 2.7%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중국 경제둔화 등을 반영하여 0.5%p 하향 조정함
- 중국 철강수요는 중국의 건설 및 제조업 경기둔화와 정부의 긴축,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21년에는 1.0%가 증가하고, '22년에는 정체(0.0%)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철강수요는 재정부양책과 백신접종으로 인해 올해 12.2%의 빠르게 회복한 이후 내년에도 4.3%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철강수요는 낮은 백신 접종률과 관광산업의 더딘 회복, 정부 지원의 한계 등으로 '21년 수요는 선진국보다 더디게 증가(+11.0%)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2년에는 인도와 아세안을 중심으로 선진국보다 빠른 증가세(+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44) 스크랩워치(2021.10.28.), 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51(2021.11.11. 검색)



11) 자동차

❶ 우리나라 대 미국·중국 전기차 무역적자 심화[45)]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미국·중국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 전기차 누적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완성차 수출액(343억 달러)의 10.8%, 수입액은 약 10억 달러로 완성차 수입액의 9.1%를 차지함
- 또한 전기차 차량 대수 기준, 올해 3분기 전기차 누적 수입은 2만 6,151대를 기록하여 전년 총 수입 대수(2만 2,206대)를 초과함
- 올해 9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누적 전기승용차는 총 4만 8,720대이며, 국산차는 56.5%, 수입차는 43.5%를 차지함

국가별 전기차 무역적자는 미국이 5억 1천만 달러로 교역국 중 가장 높았으며, 중국이 1,800억 달러로 2위를 기록함

-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2억 7천만 달러, 수입은 7억 8천만 달러로 무역적자가 발생함
-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내연기관차는 꾸준한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나 '19년이후 테슬라의 국내 진출로 미국 전기차 수입이 지속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 또한, 높은 관세 등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거의 없는 반면,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 수입 증가로 올해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차는 1,800만 달러를 기록함
- 중국산 전기버스는 올해 8월까지 230대, 초소형 전기차는 2,051대가 수입되었으며, 전기버스의 중국산 비중이 36%를 차지하면서 국내 시장지배력을 높여가고 있음
-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부품 분야에서도 중국산 수입이 증가하면서 작년부터 중국과의 자동차 부품 교역도 적자로 전환됨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자국산과 수입산 간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펼칠 전망임

- 중국은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배터리 종류, 구동모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매월 발간하여 현지 업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약 880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발의된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에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 생산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약 536만 원), 미국산 배터리 장착시 500달러(약 60만 원)의 추가 세금 혜택이 포함되어 대부분의 외투기업은 차별을 받게 될 전망임

45)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10.29.),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556&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11.11. 검색)



-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산, 수입산 차별없이 동등하게 최대 800만 원 내에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고가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 축소 차원에서 6천 만 원을 기준으로 차량별 차등 지원제를 실시하고 있음
-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중국 초소형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최근 미국, 중국 등은 전기차 관련 비관세장벽을 높이면서 지역주의 양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도개편을 검토하거나 기 체결된 한·중FTA, 한·미 FTA에 근거하여 양국의 자국산과 한국산간 차별을 폐지토록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전기동력차 산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30년 450만 대 전기동력차 보급 목표 등 무리한 전동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무역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임
- 우리 전기동력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구매보조금 지급, 버스, 트럭 등 중국산 전기차와 직접 경쟁하는 차량에 대해 R&D와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12) 잡화

❶ '21년 9월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한 179억 8,500만 달러, 수입 금액은 0.3% 증가한 103억 1,000만 달러 기록[46)]

9월 기계 산업 수출은 수송기계업 부문(-13.4%)을 제외한 모든 부분(일반기계: +9.1%, 전기기계: +8.6%, 정밀기계업: +6.1%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9월 기계 산업 수입도 전기기계업(+23.1%)과 일반기계업(+12.7%), 금속제품업(+9.1%)등 부문에서 증가세를 기록하고 수송기계업부문(-30.0%)만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한편 '21년 3분기 누적 국내 기계 수출과 수입금액은 각각 1,637억 3,800만 달러, 1,031억 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하게 21.4% 증가함

46)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10월호(2021.11.16.),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11.18. 검색)



'21년 9월 기계 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1. 9				'21. 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 산업(합계)	17,985	0.3	10,310	0.3	163,738	21.4	103,112	21.4
일반기계업	4,317	9.1	3,244	12.7	39,070	11.0	33,735	21.1
전기기계업	4,031	8.6	2,290	23.1	32,259	28.9	19,130	25.1
정밀기계업	1,692	6.1	2,109	4.2	14,230	20.0	22,292	28.1
수송기계업	6,718	-13.4	2,088	-30.0	70,106	26.2	22,854	15.4
조선	949	-43.2	218	-44.6	15,798	15.5	2,246	8.2
금속제품업	1,227	33.7	578	9.1	8,073	11.8	5,101	11.4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유류·화학공업생산품

❶ 울산항 배후에 입지한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공장시설 정비작업을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47]

SK이노베이션의 주력 생산기지인 울산CLX의 기계·장치·배관 등 공장시설의 정비작업에 그린시스템을 도입함

- 우선 각종 정비 작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체되는 부품들을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함
- 또한 철거된 설비도 적극 재활용하였는데 일부는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로 이용하였으며 정기 보수시 각종 열교환기 물청소에 사용된 용수의 경우 임시 회수처리기를 활용하여 80% 이상 재활용함
- '21년 상반기에 진행된 원유저장 탱크 정기 개방검사에서도 이동용 발전기 대신 상용전기를 사용해 대기오염물질(NOx)과 온실가스를 저감함
- SK 이노베이션은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전기 및 발전기 운용 혁신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향후 울산뿐만 아니라 전 사업장 정비 과정에 친환경 방식을 도입할 계획임

47)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동향(2021.11.08.), https://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1689/page/1/term_id/6/v_mode/user (2021.11.18.검색)



❷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사업에 1조 4천억 원 출자[48)]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인 '라인 프로젝트(LINE Project)'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1조 4천억 원을 출자하기로 함

- '라인 프로젝트'는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초대형 석유화학단지를 인도네시아에 조성하는 사업이며, 연산 에틸렌 100만 톤을 생산하는 납사 크래커 공장을 신설하고, 기존 폴리에틸린(PE) 공장과의 수직계열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임
-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에서 에틸렌 100만 톤, 프로필렌(PL) 52만 톤, 폴리프로필렌(PP) 25만 톤 등을 생산해 연간 20억 6천만 달러(2조 3,55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사업 주체인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법인이 총 1조 4,33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고, 롯데케미칼과 자회사인 롯데케미칼 타이탄이 각각 7,022억 원, 7,309억 원을 출자하게 되며, 전체 사업 규모는 총 4조 4천억 원 수준임
- 롯데케미칼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진행해왔으며, 동남아 경제 성장에 따른 내수 시장 확대와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올해 말 프로젝트를 시작해 '25년 완료할 예정임

❸ 코오롱, 미국 오리진과 손잡고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49)]

코오롱과 오리진, 두 회사가 보유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기술을 결합해 석유화학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플라스틱을 선보일 계획임

- 코오롱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바이오 원료로 높은 수준의 고분자 플라스틱 합성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리진 머티리얼은 폐목재·폐지 등 버려진 천연물질로부터 화학원료를 만들어 내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임
- 기존 100% 바이오 원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PET에 비해 낮은 물성으로 빨대 등 1회 용품으로 주로 사용됐으나, 오리진 머티리얼이 개발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는 단점을 보완해 석유화학 PET를 대체하는 수준의 제품 생산이 가능함
-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 원료로 바이오 PET과 PEF(Poly Ethylene Furanoate) 제품을 생산할 계획임
- 바이오 원료 기반 PEF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첨단 고분자 플라스틱이며 '25년 양산이 가능할 전망임

48)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동향(2021.10.22.), https://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1669/page/3/term_id/6/v_mode/user(2021.11.11.검색)
49)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동향(2021.11.10.), https://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1700/page/1/term_id/6/v_mode/user(2021.11.11.검색)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 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1. 11. 25

편집겸발행인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